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최 경 희*

Abstract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Dance Department

Choi, kyung-hee (Kwan Dong University)

This thesis aims at developing the curriculum for specializing the dance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Between 1980-1990 dance education department had run over at university and 40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4-year university. Also many things such as distinguished educational goals and educational curriculums to make specialist were discussed. Especially some researchers try to study the problem on education curriculum and requirement levels for developing more practical and reasonable curriculum.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ore effective education curriculum by looking at faculty's teaching tendencies.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d is an ideal model of Dance in higher education, whose main featur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formance Based Dance Curriculum includes understanding of high artificial principal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contexts of dance education. The program aims to develop well-educated performers and choreographers, the makings related to dancing(stage art, design, light art, clothing, make-ups, music, films). Toward this aim, the program will provide intensive studio training as well as related studies in dance students are also encouraged to audition for and present their works on concerts performing and choreographing opportunities.

Second, Teacher preparation Curriculum. The purpose of the program make teachers in elementarily, middle, high school and social program to teach students. Toward this end, the program will facilitate an endowment in dance education and prepares them to teach in a variety of settings.

Third, Discipline Based Dance Curriculum suggest various learning base with corporations between studies.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foster theory of dance as a ful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dance discipline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discipline.

The three educational curriculum suggested here teaching structure which can perform educational contents and specific gaols according to its gaols and emphasizing points.

* 관동대학교 강사

I. 서론

문화적 형태로서 무용이 발달하게 된 것은 대학 안에서 무용이 교육매체로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해방전후 무용교육은 유명 무용가들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3년 이화여대 체육학과 내 무용 교과목의 개설을 기점으로, 1963년 무용과가 독립적으로 설립되면서 무용교육의 세력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전 대부분의 신무용세대들이 사실 학원을 중심으로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체계에 의해 무용을 가르치고 전수시킨 것에 비해 대학 중심의 무용교육은 다양한 창작활동과 학문적 제시를 통해 순수공연 예술로서 무용의 위치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용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저변확대를 이루어 한국 무용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을 통한 무용교육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대학 무용교육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주안점은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설립 이래 199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제 대학 무용(학)과가 40개나 증설됨에 따라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병행되지 못했다는 의견들로 고등무용교육의 내용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들이었다. 특별히 매년 배출되는 이천여명의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 모색이 불분명하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졌다.

지금까지 고등무용교육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제시에 대한 연구는 김옥진, 1986; 육완순, 1986; 경임순, 1987; 이에덕, 1991, 1993; 이정희, 1992; 김화숙, 1992, 1993, 1997; 이정희, 1994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자들은 대부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과 같은 실기과목에 무용교육이 편중되어 있어 보다 지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이루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차별화 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문헌분석에 기초해 한국과 미국, 또는 국내 대학들의 현행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한 것에 비해, 김경희(1993), 박수경(1997)은 대학 무용교육의 주요 참여자인 재학생을 중심으로 무용교육 및 교육내용의 문제점과 요구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경희(1996)연구에 의하면 교육목표 및 내용은 학습자들의 공통적인 필요와 흥미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공통적인 요구, 교과전문가들의 견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것임을 볼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의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하다.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학)과가 학생 행동의 변화와 발전 측면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해서 교수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학 무용교육의 미래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 무용(학)과 교육의 주요참여자인 교수진들의 교수에 있어서 두드러진 경향 및 요구수준을 살펴봄으로서 한국 대학 무용교육의 제 양상 및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자·사회·지식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수진들의 요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소재의 14개 대학과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은 인문대학과 이과대학의 조사를 위해 지방의 7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집단은 1998년 한국 무용교육학회지에 게재된 4년제 대학 무용(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용(학)과의 교수(teaching)에 있어서 두드러진 경향을 파악하고, 특성화를 위한 미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교과구성과 무용(학)과 행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임교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결과 체육대학 4, 예술대학 7개 대학, 예체능대학 2개, 인문대학 4, 이과대학 4개의 총 21개 대학 71 명 중 56부가 회수되어 79%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표 II-1. 분석된 자료의 변인별 통계

대학	체육대학	예술대학	예체능대학	인문대학	이과대학
N(56)	13(23.2)	25(44.7)	4(7.1)	7(12.5)	7(12.5)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한국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설문지>로 Paulson Pamela Na(1984), Sondi Feldmaier(1994), 김경희(1993), 박수

경(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 목표, 학과목 분류의 내용을 참고로 본 연구에 알맞게 재작성 하였다. 무용(학)과의 교육목표, 내용 및 운영, 학생 및 교수진 등의 현황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대학 교수진들의 요구사항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설문 조사의 구성내용

영역	문항내용
교육목표	교육목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현행 교육 과정의 강조점. 강조되어야 할 목표.
교육내용 및 운영	교육내용의 실제적 효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실기과목.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목. 보충되어야 할 교과목.
학생 및 교수진	학생 수용인원. 진로방향의 우선 순위. 공연단체 결성 여부. 정규 교육의 프로그램.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 현황. 교수진의 자격.
교육개선방안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과목 문제점. 교육개선방안.

3. 연구절차

질문지 조사에 대한 응답 방법은 조사자가 문항을 읽고 난 후 각 문항의 질문에 따라 5단계 평점 척도, 주관식 서술방법, 다지선다 형식의 방법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1999년 7월 1~2일 한국 무용교육학회 창립 10주년 세미나 및 지도자 강습회에 참여한 20여명의 각 대학 교수진에게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적으로 제기되었고, 문항의 중복성, 설문 자체의 미비함이 발견되어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완성된 설문지는 1차적으로 해당교수진의 근무처로 연구 취지를 알리는 서신과 반송우표를 동봉한 질문지를 우송하여 조사문항에 응답하게 한후 이를 반송토록 했다.

4. 자료의 처리방법

자료의 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하여 빈도 및 평균을 구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분석과 논의

1. 교육목표

(1) 교육목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다음의 제시된 교육목표가 각 무용(학)과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가, 교수진들의 교육목표의 인식에 관한 내용의 결과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무용(학)과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내 용	전혀 하지 않음	거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M
교수능력 및 자질향상	0(0.0)	2(3.6)	1(1.8)	5(8.9)	48(85.7)	4.77
공연 및 안무능력	0(0.0)	2(3.6)	12(21.4)	19(33.9)	23(41.1)	4.13
신체발달 및 체력 향상	2(3.6)	4(7.3)	19(34.5)	17(30.9)	13(23.6)	3.64
움직임에 관한 지식의 인지	1(1.8)	2(3.6)	11(20.0)	23(41.8)	18(32.7)	4.0
지적인 성장과 통찰력 향상	1(1.8)	0(0.0)	6(10.7)	15(26.8)	34(60.7)	4.45
자아 실현	2(3.6)	0(0.0)	2(3.6)	30(53.6)	22(39.3)	4.25
팀워크의 협동	2(3.6)	0(0.0)	17(30.4)	21(37.5)	16(28.6)	3.88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달	1(1.8)	5(9.1)	12(21.8)	24(43.6)	13(23.6)	3.78
기 타	1(1.8)	0(0.0)	0(0.0)	0(0.0)	0(0.0)	0.05

교수진들의 교육목표의 중요성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교수진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목표 중에서 4.0 이상의 평균치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자로서 교수능력 및 자질향상

(M=4.77), 총체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지적인 성장과 비판적인 통찰력을 향상(M=4.45), 자기표현력, 미적 감수성을 개발, 자아실현(M=4.25), 예술가로서 공연 및 안무능력(M=4.13), 체육·레크리에이션·건강과 관련한 인간 움직임에 관한 지식을 인지(M=4.0)등이다. 교수진은 교육자로서 공연 예술가로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무용에 관한 지식을 통해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표현 및 미적 감수성의 개발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한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현행 교육과정의 강조점

현행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교수진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 중 4.0이상의 평균치를 나타낸 항목은 공연 수행능력의 향상 및 실기 테크닉의 숙달(M=4.30), 안무 작업의 실습과 경험(M=4.27)이다. 앞서 대학 무용교육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 내에서 무용은 순수공연예술로서 탁월한 공연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여겨왔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강조점은 계속 유지되고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연수행능력의 향상 및 실기 테크닉의 숙달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창조적 경험과 과정을 강조하는 안무도 중요시되고있다.

표 III-2. 현행 교육과정의 강조점

(단위 : M)

내 용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보통	강조	매우 강조	M
공연수행능력향상 및 테크닉 숙달	3(5.4)	1(1.8)	5(8.9)	14(25.0)	33(58.9)	4.30
안무작업의 실습과 경험	2(3.6)	1(1.8)	8(14.3)	14(25.0)	31(55.4)	4.27
무용연구와 응용측면의 교수특성연구	1(1.8)	6(10.9)	19(34.5)	16(29.1)	13(23.6)	3.62
무용역사·사회적측면의 학문적연구	1(1.8)	3(5.4)	20(35.7)	21(37.5)	11(19.6)	3.68
무용철학, 비평분야의 학문연구	1(1.8)	9(16.1)	22(39.3)	18(32.1)	6(10.7)	3.34
무용과학분야의 학문연구	2(3.6)	12(21.8)	21(38.2)	15(27.3)	5(9.1)	3.16
여가 및 체력연구	6(11.1)	16(29.6)	17(31.5)	12(22.2)	3(5.6)	2.81
기 타	0(0.0)	0(0.0)	0(0.0)	2(3.6)	0(0.0)	0.14

(3) 강조되어야 할 목표

표 III-3. 강조되어야 할 교육목표

내용	연구 및 지식배양	신체기능배양	안무창작 능력배양	지도력 배양	기타	계
N	14	1	27	12	1	56
%	25.5	1.8	49.1	21.8	1.8	100

무용(학)과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목표의 내용에 대한 결과는 무용 안무 및 창작 능력 배양(49.1%), 무용 연구 및 지식 능력 배양(25.5%), 지도자 능력 배양(21.8%), 신체기능능력 배양(1.8%) 순으로 나타났다.

2. 교육내용 및 운영

(1) 교육내용의 실제적 효과

표 III-4. 교육내용의 실제적 효과

효과측면	학문적지식	신체적기능	무용지도방법	안무창작능력	기타	합계
N	15	10	8	20	3	56
%	26.8	17.9	14.3	35.7	5.4	100

현행 무용(학)과 교육내용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의 결과는 안무 및 창작능력(37.5%), 학문적 지식(26.8%), 신체적 기능(17.9%), 무용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행 무용(학)과의 교육내용은 안무 및 창작능력을 배양하고 학문적 지식을 추구하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실기과목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실기과목 중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의 순위는 현대무용(32.8%), 한국무용(36.4%), 발레(32.7%), 안무, 구성(28.3%), 즉흥(20.8%)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의 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진들이 각 전공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5.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실기과목

과목 \ 순위	1	2	3	4	5
현대무용(현대무용기초)	21(38.2)	3(5.5)	12(21.8)	3(5.7)	0
한국무용(한국무용기초, 한국무용, 전통무용)	18(32.7)	20(36.4)	2(3.6)	0	0
발레(발레기초, classic 발레, 창작발레)	7(12.7)	8(14.5)	18(32.7)	0	2(3.8)
재즈	2(3.6)	0	1(1.8)	2(3.8)	2(3.8)
댄스 스포츠	0	1(1.8)	0	2(3.8)	0
발림댄스	0	2(3.6)	1(1.8)	1(1.9)	1(1.9)
캐릭터 댄스	0	2(3.6)	1(1.8)	4(7.5)	4(7.5)
안무, 구성	1(1.8)	11(20.0)	2(3.6)	15(28.3)	6(11.3)
즉흥	2(3.6)	3(5.5)	3(5.5)	7(13.2)	11(20.8)
Effort/shape	2(3.6)	0	4(7.3)	2(3.8)	2(3.8)
민속무용(한국, 외국 민속무용)	0	2(3.8)	2(3.8)	5(9.4)	7(13.2)
레파토리	0	1(1.8)	3(5.5)	3(5.7)	6(11.3)
뮤지컬,극장무용	1(1.8)	0	0	2(3.8)	4(7.5)
무용워크샵(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1(1.8)	1(1.8)	3(5.5)	6(11.3)	5(9.4)
체육(체조, 에어로빅, 리듬체조, 수영, 레크레이션)			1(1.8)		
기 타					

(3)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목

이론 과목 중에서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의 순위를 나타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특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과목은 무용개론(52.8%), 무용사(22.6%), 무용철학 및 비평(20.8%), 무용철학 및 비평(17.6%), 사회무용(1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교수진들의 전공과목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교수진 56명중 10명의 순수이론 교수진들의 전공영역은 무용론, 미학, 비평, 무용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의 실기교수진들은 무용사, 무용미학 비평론, 창작법, 무용 교육, 인류학, 민속무용, 기독교와 무용 같은 과목을 실기와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다. 실기 교수진중 3명만이 무용해부학, 생리, 심리와 같은 무용 과학 측면을 지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6.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편과목 순위

과목 \ 순위	1	2	3	4	5
무용개론	28(52.8)	2(3.8)	3(5.7)	2(3.9)	2(4.2)
무용철학,미학	1(1.9)	9(17.0)	11(20.8)	9(17.6)	2(4.2)
무용비평	2(3.8)	3(5.7)	1(1.9)	7(13.7)	3(6.3)
무용사	13(24.5)	12(22.6)	10(18.9)	4(7.8)	5(10.4)
무용인류학	0	2(3.8)	1(1.9)	2(3.9)	1(2.1)
무용과학	0	1(1.9)	2(3.8)	2(3.9)	4(8.3)
신체요법	1(1.9)	3(5.7)	0	1(2.0)	1(2.0)
무용상해 및 예방치료	0	2(3.8)	3(5.7)	0	2(4.2)
무용음악	0	2(3.8)	0	2(3.9)	0
무용교수법	4(7.5)	10(18.9)	1(1.9)	3(5.9)	3(6.3)
무용교육과정	0	1(1.9)	3(5.7)	1(2.0)	0
민속학	0	0	0	2(3.9)	2(4.2)
무용기록법	1(1.9)	1(1.9)	2(3.8)	2(3.9)	0
사회무용	1(1.9)	0	0	0	7(14.6)
무용감상	0	0	1(1.9)	0	2(4.2)
무용용어	0	1(1.9)	1(1.9)	1(2.0)	1(2.1)
무용음악	1(1.9)	0	1(1.9)	2(3.9)	0
무용비디오	0	0	0	0	2(4.2)
원서강독	0	0	0	2(3.9)	0
졸업논문	0	0	0	0	2(4.2)
무대의상및 분장	0	1(1.9)	0	1(2.0)	0
체육원리	0	0	0	1(2.0)	1(2.1)
학교보건	0	0	2(3.8)	0	0
운동심리학	0	1(1.9)	0	2(3.9)	1(2.1)
운동생리학	1(1.9)	0	0	0	2(4.2)
운동학습	0	0	0	0	0
기 타	0	1(1.9)	3(5.7)	1(2.0)	3(6.3)

(4) 보충되어야 할 교과목

표 III-7. 보충되어야 할 교과목

(단위 : 빈도, 백분율)

교과내용	무용철학,미학	무용 심리학	무용,사회인류학	공연예술 일반	테크닉 및 안무과정
N	21	16	20	28	21
%	10.2	7.8	9.8	13.7	10.2

교과내용	무용역사	무용교육	기록법, 동작분석	기획경영	무용요법	기타
N	7	21	16	36	15	4
%	3.4	10.2	7.8	17.6	7.3	2.0

교수진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보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과목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공연기획 및 경영(17.6%), 공연예술에 관한 일반적 연구(13.7%), 테크닉, 스타일, 안무과정에 관한 연구(10.7%), 무용·타 예술과 결합된 철학, 미학적 연구(10.2%), 교육에 있어서 무용에 관한 연구(10.2%), 무용에 관한 사회, 인류학적 연구(9.8%), 무용심리학(7.8%), 기록법 및 동작분석법(7.8%), 무용요법(7.3%), 무용역사(3.4%), 기타(2.0%) 순이다.

3. 학생 및 교수진

(1) 학생수용인원

표 III-8. 학생 수용 인원

소속\인원	120명미만	120명	160명	200명	200명초과	기타	계
체육	0	2(15.4)	6(46.1)	4(30.7)	1(7.7)	0	13(23.2)
예술	4(16.0)	3(12.0)	15(60.0)	1(4.0)	0	2(3.6)	25(44.6)
예체능	0	0	4(100.0)	0	0	0	4(7.1)
인문	2(28.6)	3(42.9)	2(28.6)	0	0	0	7(12.5)
이과	1(14.2)	3(42.9)	3(42.9)	0	0	0	7(12.5)
	7(12.5)	11(19.6)	30(50.6)	5(8.9)	1(1.8)	2(3.6)	56(100.0)

$\chi^2=28.167$, $df=20$, $p=0.106$

현재 무용(학)과 수용인원은 160명이 5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120명(19.6%), 120명 미만(12.5%), 200명(8.9%)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소재의 체육, 예술, 예체능대학은 정원 수 160명이 1순위였고, 지방소재의 인문, 이과대학은 120명과 160명의 인원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소속대학별 학생 수용인원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학생들 수에 기초해 볼 때 각 대학마다 매해 30~4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졸업생들의 진로방향

표 III-9. 진로방향 우선순위

	대학원	무용가	교사	학원강사	무용학자	기타
1순위	20(35.7)	14(25.0)	1(1.8)	20(35.7)	0	1(1.8)
2순위	21(37.5)	10(17.9)	9(16.1)	15(26.8)	0	0
3순위	11(19.6)	10(33.9)	8(14.3)	11(19.6)	0	1(1.8)
4순위	3(5.4)	7(12.5)	25(44.6)	5(8.9)	1(1.8)	0
5순위	0	0	1(1.8)	1(1.8)	8(14.3)	0

각 대학마다 매해 30~40명의 졸업하는 학생들의 진로방향의 1순위는 대학원 진학(35.7%), 학원 및 문화시설강사(35.7%), 2순위는 대학원 진학(37.5%), 3순위는 무용가(33.9%), 4순위는 교사(44.6%)순으로 나타났다.

(3) 공연단체

표 III-10. 공연단체 결성여부

결성여부 \ 소속	체육	예술	예체능	인문	이과	계56(100%)
예	9(69.2)	15(60.0)	4(100)	6(85.7)	7(100)	41(73.2)
아니오	4(30.8)	10(40.0)	0	1(14.3)	0	15(26.8)

$$\chi^2=9.644, df=4, p=0.047$$

학생들의 공연 및 안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 공연단체가 결성되어 있는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73.2%가 결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예체능, 인문대학의 경우 공연단체가 모두 결성되어 있어 대학별 공연단체 결성에 있어서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4) 정규교육 외 프로그램

표 III-11. 정규교육 외 프로그램

소속 \ 활동	workshop	월례·졸업 발표회	교수연구 발표회	세미나	기타	계
체 육	10(32.2)	12(38.7)	5(16.1)	3(9.7)	1(3.2)	31(23.5)
예 술	15(26.8)	20(35.7)	14(25.0)	5(8.9)	2(3.6)	56(42.4)
예체능	3(25.0)	4(33.3)	3(25.0)	1(8.3)	1(8.3)	12(9.1)
인 문	4(23.5)	6(35.2)	5(29.4)	1(5.9)	1(5.9)	17(12.9)
이 과	3(18.8)	6(37.5)	3(18.8)	2(12.5)	2(12.5)	16(12.1)
계	35(26.5)	48(36.3)	30(22.7)	12(9.0)	7(5.3)	132(100.0)

$\chi^2=4.557$, $df=16$, $p=0.998$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의 결과는 <표 III-11>으로 월례·졸업 발표회(36.3%), workshop(26.5%), 교수 연구 발표회(22.7%), 세미나(9.0%) 순위이다. 초기 대학 무용(학)과 교수진들이 순수예술로서 무용예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학생들의 공연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경험의 중요한 요소로서 workshop이나 발표회 준비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현행 대학무용(학)과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하고 학습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측면에서 workshop, 각종발표회 등이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속대학별 정규 교육외의 프로그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5) 전임교수

표 III-12. 소속 대학별 전임 교수

소속 \ 명수	3명이하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이상	계
체 육	1(7.7)	2(15.4)	3(23.0)	2(15.4)	5(38.5)	0		
예 술	1(4.0)	3(12.0)	5(20.0)	9(36.0)	6(24.0)	1(14.0)		
예체능	0	0	4(100.0)	0	0	0		
인 문	0	0	7(100.0)	0	0	0		
이 과	0	2(28.6)	5(71.4)	0	0	0		
계	2(3.6)	7(12.5)	24(42.9)	11(19.6)	11(19.6)	1(1.8)		56(100.0)

$\chi^2=38.730$, $df=20$, $p=0.007$

현행 대학무용(학)과의 전임교수 수는 <표 III-12>와 같다. 체육대학 소속 무용(학)과 교수진 전임교수 수는 6명(38.5%), 4명(23.0%), 3명과 5명이 각각(15.4%)순위이다. 예술대학은 5명(36.0%), 6명(24.0%), 4명(20.0%)순위이다. 예체능대학과 인문대학에서는 4명이 각각 100%를 차지했다. 소속대학별 전임교수에서는 예체능, 인문, 이과대의 경우 4명이 가장 많았으며 체육대학은 6명, 예술대학은 5명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6) 시간 강사

표 III-13. 소속 대학별 시간 강사수

소속	명수	없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체 육					4(30.8)	1(7.7)	8(61.5)	
예 술					0	2(8.0)	23(92.0)	
예체능					0	0	4(100.0)	
인 문					0	0	7(100.0)	
이 과					0	0	7(100.0)	
계					4(7.1)	3(5.4)	49(87.5)	56(100.0)

$\chi^2=15.493$, $df=8$, $p=0.050$

시간강사 숫자를 소속대학별로 살펴보면 5명 이상이 전체 87.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속대학별 시간강사수에서는 5명 이상이 가장 많았으나 체육대학은 3~4명, 예술대학은 4명도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1$). 전임 교원수 평균 4명에 비교해 보면 전임교원 숫자보다 시간강사 수가 많다.

(7) 교수진들의 자격규정에 대한 인지도

표 III-14. 학위여부

소속대학	학위	체육	예술	예체능	인문	이과	계
	예	9(69.2)	13(52.0)	1(25.0)	3(42.9)	3(42.9)	29(51.8)
	아니오	4(30.8)	12(48.0)	3(75.0)	4(57.1)	4(57.1)	27(48.2)

$\chi^2=0.247$, $df=4$, $p=0.513$

수업내용의 질적 운영 및 효율적 수업 방안으로서 교수진들의 공식적 학위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수가 51.8%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48.2%다. 따라서 공식적 학위가 교수진들의 자격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3.6%더 높다.

표 III-15. 전문적인 경력 및 경험

경력 및 경험 \ 소속대학	체육	예술	예체능	인문	이과	계
예	8(61.6)	16(69.6)	3(75.0)	5(71.4)	7(100)	39(72.2)
아니오	5(38.5)	7(30.4)	1(25.0)	2(28.6)	0	15(27.8)

$\chi^2=5.346$, $df=4$, $p=0.254$

실기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진을 임용할 때 전문적인 경력 및 경험이 공식적인 학위와 동등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2.2%, 동등하지 않다는 응답이 27.8%를 차지해 전문적인 경력과 경험을 더 중요시했다. 소속대학별 전문적인 경력 및 경험 여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교육개선 방안

(1) 교육과정 문제점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내용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소속대학별 교육 과정 문제점

문제 \ 소속	추상적 교육목표	학문체계	특성화	전문교원	기타	없다	계
체 육	1(5.7)	5(27.8)	8(44.4)	4(22.2)	0	0	18(23.6)
예 술	1(3.6)	6(21.4)	15(53.6)	2(7.1)	2(7.1)	2(7.1)	28(36.8)
예체능	1(16.7)	3(50.0)	1(16.7)	1(16.7)	0	0	6(7.7)
인 문	1(7.7)	4(30.8)	5(38.5)	1(7.7)	0	2(15.4)	13(17.1)
이 과	1(7.7)	4(30.8)	5(38.5)	1(7.7)	0	2(15.4)	13(17.1)
계	5(6.6)	22(29.0)	32(42.1)	10(13.2)	3(4.0)	4(5.3)	76(100.0)

$\chi^2=17.550$, $df=20$, $p=0.617$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특성화되지 못한 교육 목표의 설정 및 교육내용(42.0%), 교육 목표를 실행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문체계 부진(29.0%), 전문교원 부족 (13.2%), 추상적인 교육목표 설정(6.6%)으로서 교수진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교육과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 교과목 문제점

표 III-17. 교과목 문제점

항 목	N	%
편중된 전공필수과목	8	15.7
전공선택의 제한	25	49
실기와 이론의 부적절한 비율	9	17.6
기 타	4	7.8
없 다	5	9.8
	51	100.0

현행 교과목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공 선택 폭의 제한(49.0%), 실기와 이론의 부적절한 비율(17.7%), 편중된 전공 필수과목(15.7), 교과목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한 응답수는 9.8%이다.

표 III-18. 소속대학별 교과목 문제점

소속 \ 문제	전공필수	전공선택	실기와 이론	기타	없다	계
체 육	0	6(54.6)	3(27.3)	1(9.1)	1(9.1)	11(21.6)
예 술	4(7.4)	11(47.8)	4(17.4)	3(13.0)	1(4.4)	23(45.1)
예 체능	0	3(75.0)	0	0	1(25.0)	4(7.8)
인 문	0	4(66.7)	0	0	2(33.3)	6(11.8)
이 과	4(57.1)	1(14.3)	2(28.6)	0	0	7(13.7)
계	8(15.7)	25(49.0)	9(17.7)	4(7.8)	5(9.8)	51(100.0)

$\chi^2=27.229$, $df=16$, $p=0.039$

소속대학별 교과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공선택의 제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나 체육대의 경우에는 실기와 이론의 부적절한 비율을, 이과대의 경우는 편중된 전공필수 과목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3) 교육과정 개선사항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무용전공선택과목의 비율을 높인다 (39.6%), 무용전공필수과목의 비율을 높인다(31.7%)이다.

전공 과목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교수진들의 견해는 전공학과 내에 여러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문적, 직업적 요구에 부응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19. 교육과정 개선사항

항 목	N	%
일반교양과목의 비율을 높인다.	6	5.9
일반교양과목의 비율을 낮춘다.	17	16.8
무용전공 필수과목의 비율을 높인다.	32	31.7
무용전공 필수과목의 비율을 낮춘다.	4	4.0
무용전공 선택과목의 비율을 높인다.	40	39.6
무용전공 선택과목의 비율을 낮춘다.	2	2.0
계	101	100.0

5. 논 의

(1) 교육목표

교수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무용(학)과의 목표는 ‘교육자로서의 교수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킨다’로서 현행 무용(학)과 교수진들은 교육자 양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강조에 있어서는 공연 수행 능력 및 테크닉의 발달과 안무작업과 실습에 경험을 중요시하여 설정된 교육 목표와 실제적 교육 강조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 교수진들은 표현적인 신체육성과 창작활동을 통해 우수

한 무용 교육자, 안무가, 무용 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자 의도했지만 현재와 같이 대학수가 증가하고 분화된 교육배경 안에서는 좀더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한다. 대학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맞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무용(학)과 교수진들은 공연 수행, 안무, 교육, 역사, 인류학, 철학, 비평, 생리 심리, 역학과 관련된 무용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무용(학)과 교수진들은 특성화를 염두하여 특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보다는 대체로 예술적, 교육적, 이론적 영역의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분석된다.

무용(학)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목표는 무용 안무 및 창작 능력을 배양(49.1%)하는 목표이다.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화, 특성화 방향인데 우리나라 무용(학)과의 경우 안무 및 창작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창작 능력의 배양이라는 교수진들의 인식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된 창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견해를 나타낼 수 있다. 안무 및 창작 능력을 배양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술적 측면에서 무용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안무는 무용 구성의 미적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와 질서를 갖춘 미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동작 구성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을 구상하고 실제 주제에 적합한 동작을 발견하여 구성하고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질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적 측면에서 안무 및 창작 과정은 훌륭한 학습 매체가 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창조성을 중요시하는 무용학습이 활성화되어 초·중등 학교과정 중 창작 무용이 일관되게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국 무용이나 민속 무용 등 기존 작품을 채택해서 가르치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태에 맞는 창조성을 배양하는 무용교육과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교육이란 하나의 기술이나 패턴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목적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창작 무용에 대한 단계별 지도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되어야 할 내용 목표 측면에서 무용의 학문적 정당성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무용 연구 및 지식 능력의 배양,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지도하게 될 교육자 양성을 위한 지도력 배양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목표 설정과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2) 무용(학)과의 교육내용 및 운영

현행 무용(학)과 교육내용의 실제적 효과는 안무 및 창작 능력(37.5%), 학문적 지식(2.8%), 신체적 기능(17.9%), 무용지도에 필요한 방법(14.3%) 순이다. 교육내용의 실제적 효과에 관한 소속 대학별 순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현행 무용(학)과의 교육내용은 안무 및 창작 능력을 배양하고 학문적 지식을 추구하는 두 가지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경희(1993) 연구에 의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은 교육 과정 내에서 한국 무용, 발레, 현대 무용과 같은 기술적 측면과 공연이 이미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수경(1997) 연구에 있어서도 현행 무용(학)과 교육내용에서 학문적 지식과 신체적 기능의 두 가지 영역에서 실제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선행논문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본 논문에서 밝혀진 교수진들의 의견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기과목 중 특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현대 무용(38.2%), 한국 무용(36.4%), 발레 (32.7%), 안무 구성(28.3%), 즉흥(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 무용 등 현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진들이 각 전공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 개의 주요 실기 과목을 토대로 특성화를 이루고자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개의 실기 과목을 주안점으로 각 과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한국무용 분야는 한국무용, 한국무용기초, 전통무용으로 명칭이 나누어져 있으나 특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전통무용, 한국창작무용, 궁중무용, 의식무용(무속불교), 생활무용(놀이, 민속무용), 한국음악(장단의 이해), 한국 춤사위 분석연구, 한국무용무보, 한국무용교수법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작업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무용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속무용 이외에 재즈, 댄스 스포츠, 볼룸댄스 같은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으나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과 같은 주요 실기 교과목보다는 중요성 측면에서 인지도가 낮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순수예술무용에 대한 우위적인 견해나 인식보다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제교육과 공연예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실기과목에 대한 교과목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론 과목에서는 무용 전공 분야의 이론이나 개념을 소개하는 무용 개론 및 무용사, 미학, 철학을 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설문에 참여한 교수진들은 세 개의 주요 실기 전공 영역 이외에 무용론, 미학, 비평, 무용사, 창작법, 무용 교육, 인류학, 민속 무용 같은 이론 과목을 실기와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다. 순수 이론만을 가르치는 교수진 역시 무

용론, 미학, 비평, 무용사를 중심으로 전공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론 교과목 역시 예술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무용 교육이나 이론분야의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는 특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무용이라는 학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기와 이론의 병행을 필요로 하나 특성화를 위해서 예술적 영역, 교육적 영역, 이론적 영역의 각 영역에 따라 교과목이 강조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진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과목의 순위는 공연 기획 및 경영(17.6%), 공연 예술에 관한 일반적 연구(13.7%), 테크닉·스타일·안무 과정에 관한 연구(10.7%)이다. 테크닉·스타일·안무 과정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미 강조되고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진들은 교과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보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교육에 있어서 무용에 관한 연구(10.2%), 무용에 관한 사회, 인류학적 연구(9.8%) 등 실기와 공연을 강조하고 있는 교수진일 지라도 학문으로서 무용에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제시된 연구에 대해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학습 내용 측면에서 심화된 학습을 이루고, 제시된 교육 목표를 실행 할 수 있는 학문 체계가 부진하다는 교수진들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용 심리학, 기록법 및 동작 분석법, 무용 요법과 같은 무용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목표측면에서 살펴본 바와는 다르게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무용(학)과 교수진들은 순수 공연 예술로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기교, 양식, 안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에 관심이 높다. 또한 무대 연출 및 제작과 관련된 공연 예술 전반에 관한 일반적 연구와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객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기획, 경영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 학생 및 교수진

매 2천명의 졸업생들의 진로 방향의 1순위는 대학원 진학, 학원 및 문화시설 강사(35.7%), 2순위는 대학원 진학(37.5%), 3순위는 무용가(33.9%), 4순위는 교사(44.6%)로 나타났다. 대학원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는 40개중 13개교이며 교사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는 학교는 12개 학교로 대학원 진학이나 교사로서 활로 모색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전국 14개 직업 무용 단체들이 해마다 오디션을 통해 소수를 선발하므로 직업 무용수로서 활동한다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실기 중심, 공연 중심의 특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수진들은 가치있는 학문적, 예술적 토대로 제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용으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유용해 질 수 있는지에 관해 선택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무용교육이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무용가 뿐 아니라 교사, 무용 치료사, 예술 행정가, 무대 제작 및 연출, 필름이나 TV를 이용한 무용 영상 산업, 의상 조명 디자이너, 무용 작가나 비평가, 역사가, 동작 분석 및 기록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무용과 관련된 직·간접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 제시된 네 개의 진로방향 이외에 선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의 경우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 이외에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로 교육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무용 또한 다양한 교육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과 질적인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공연 및 안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 공연단체가 결성되어 있는지의 질문에 전체 73.2%가 결성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체육, 예술, 이과대 교수진들은 69.2%, 60.0%, 85.7%비율을 나타냈고 예체능, 인문대학의 경우는 모두 공연 단체가 결성되어있다고 대답하므로 대학별 공연 단체 결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월례 및 졸업 발표회(36.3%), workshop(26.5%), 교수 연구 발표회(22.7%), 세미나 (9.0%)순이다. 현행 무용(학)과 내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하고 학습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측면에서 workshop이나 각종 발표회 등이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속 대학별 전임 교수 수에서는 예체능, 인문, 이과대의 경우 세 명이 가장 많고, 체육 대학은 6명, 예술대학은 5명으로 소속 대학별 전임 교수 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소속 대학별 시간 강사 수에서는 5명 이상이 전체 8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체육 대학의 경우 3,4명, 예술 대학의 경우 4명으로 전임 강사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전임 교원수 평균 4명에 비하여 시간 강사 수는 평균 5명 이상으로 시간 강사의 수가 많았다. 시간 강사수의 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수업 내용의 질적인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교수수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의 담당과목 수나 주당 강의시간이 증대하므로 비슷한 교육 내용이 반복되거나, 과목의 많은 내용을 시간 강사에 배분하므로 과목간의 연계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관심 및 동기를 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업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 현행 40 : 1, 30 : 1보다 낮은 20 : 1수준으로 전임 교수 수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학 교육에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교수라고 할 때 교수들의 특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여해

야 할 것이다.

(4) 교육 개선 방안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소속대학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행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성화되지 못한 교육목표의 설정 및 교육 내용으로 교수진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 과정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2순위를 차지한 체계적인 학문 체계의 부진(29.0%)의 문제점은 곧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내용을 지도할 교원의 부재와도 연결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목표 및 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별 기능 및 전문성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원 양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과 사회, 학문적 입장의 요구로 인해 필요한 과목들이 속속 대두되고 있으나 교수의 질을 갖춘 전문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타학문 분야의 전문인을 위촉해 무용(학)과 교수진들과 Team Teaching의 공조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학교 당국의 행정적, 재정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공 선택의 제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나 이과대의 경우는 편중된 전공 필수 과목(57.1%), 실기와 이론의 부적절한 비율 (28.6%), 전공 선택의 제한 (14.3%)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교과과정 개선 사항으로 무용 전공 선택 과목이나 필수 과목을 높이는 반면 일반 교양 과목의 비율을 낮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전공 과목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교수진들의 견해는 전공학과 내에 여러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문적, 직업적 요구에 부응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공 필수 이외에 몇몇 과목을 전공 선택이라고 개설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모두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전공과목간의 균형은 학문 영역 내에서 교과목들의 구조적 특성과 그 전공학과 교육과정의 목적 및 강조점에 따라 근본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한국 고등무용교육은 조사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바와같이 예술, 교육, 이론 영역을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동시에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려하기 때문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수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복잡한 삶의 양태와 행동양식은 교육의 다원성과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용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무용 전공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문무용가, 무용교육자, 무용이론가와 같이 학제를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이상적인 개선안으로서 세 가지 유형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연 중심의 교육과정은 높은 수준의 예술적 원리에 대한 이해 상상력을 실현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전문적 수준에서 실기교육 중심의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작품발표회를 위한 공연이나 안무기회를 가지며, 예술을 종합적인 시야에서 다루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타 예술전공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실기 테크닉의 숙달, 안무작업의 실습과 경험측면에서 전문성 있는 실기와 이론을 준비함으로서 공연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교사 양성 중심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학교무용, 평생교육, 교양교육의 사회프로그램 개발로 단계별, 연령별, 목적별 분류에 따른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시행할 전문적인 무용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확산되어 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이론 중심의 무용 교육과정은 학문 상호간에 새로운 결합을 모색하여 무용에 대한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학문적 핵심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문체계를 통한 이론의 정립을 통해 무용의 과학화와 무용학의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특성화되고 차별화 된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인해 무용은 학문으로서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예술·교육·학문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배출에 기여하여 사회와의 유효 적절한 관계를 형성한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의 교육과정은 독특한 교육목적과 강조점에 따라 교과목이 결정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합적인 무용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용이 학문과 예술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문상호간에 새로운 결합을

통해 학문적 수준을 확보하여 지식의 구조화를 이루고,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 직업 획득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교수진들은 교육받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은 대학상호간에 획일화 된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각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 무용(학)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특성화, 차별화를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인력 배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계속하여 고등무용교육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용교육의 전문성 및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자, 행정가, 일선교사들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옥진(1986),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방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집.
- 김화숙(1992), “대학 무용(학)과 체제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집.
- _____ (1993), “무용(학)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학)과의 체제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집.
- _____ (1997), “고등무용교육의 개혁 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7집.
- 박수경(1998),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소경희(1996), “현대 교육과정 이론에 나타난 지식관의 문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애덕(1991), “대학 무용교육의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희(1992), “한국대학과 미국대학의 무용과 교육목표와 교과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4),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육완순, 이희선(1992), 무용 교육과정, 서울 : 금광.
- Kyung hee, K.(1993), *The status of Dance in Korean hige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Poulson, Pamela Nan.(1982), *The Placement of the Dance program with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Congruence of Goals Across three Administrative struct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nnesota University.